

1년간 숨은보험금 3조125억 주인 찾았다

내보험 찾아줌(Zoom) 시행 1년...총 240만5000건 지급 11월말 기준 남은 숨은 보험금 여전히 9조8130억에 달해

금융당국의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 '내보험 찾아줌(Zoom)'이 시행된 후 지난 1년간 3조125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소비자가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규모가 약 3조125억원, 총 240만5000건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 797억원(222만건)을 지급했고 손해 보험회사가 221억원(18만5000건)을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550억원, 만기보험금 7901억원, 휴면보험금 2211억원, 사망보험금 14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

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하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약 9조813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조회한 숨은 보험금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한 숨은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0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에 대해 PC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은 보험금 규모가 크고 지급시점에 엄격한 생존확인 등이 불가피해 온라인 청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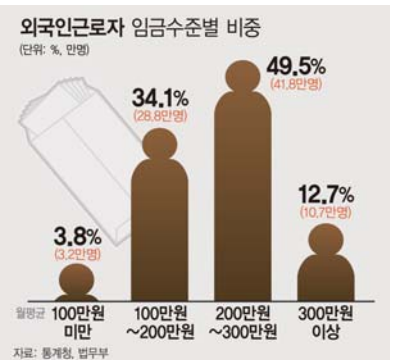
고령자 등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청구 전 유선상담을 원하는 계약자를 위해 내보험 찾아줌에 '콜 백(Call Back)' 서비스도 도입한다. 보험 수익자가 숨은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보험사 직원이 담당 설계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직접 연락해 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

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콜 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한 전화번호 정보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콜 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이후 폐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보험회와 손보험회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숨은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 주소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을 확인하면 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내년 1월 중으로 보험금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은 매년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숨은보험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6명 월급 200만원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10명 중 6명은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외국인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비중은 62.1%였다.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57.3%를 기록하며 이미 전체 외국인근로자 절반을 넘겼고 올해 또 4.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구간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소득 200만원 턱밑 언저리에 있던 이들이 그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식생활 서구화됐다”...햄·소시지류 생산액 증가 추세

농식품부,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지난해 햄·소시지류 생산액은 1조6500억원대에 육박하며 전체 식육가공품 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햄류는 식생활의 서구화 식재료 사용의 고급화 등으로 생산액 증가율이 33%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햄·소시지류 시장과 관련해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매시점 정보관리(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품별 특성이 반영돼 판매시기와 판매채널에서 차이를 보였다.

시기별로 캔햄은 명절 선물세트 구성품으로 자리잡아 명절이 있는 1분기와 3분기에 매출액이 급증했다. 반면 일반햄과 소시지류는 야외활동이 활발한 3분기에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채널별로 캔햄은 할인점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다. 소시지류는 특이하게도 편의점 판매 비중이 27%를 차지했다. 이는 핫바 형태의 날개형 소시지나 미니소시지 판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인당 연간 햄·소시지류 소비량은 2391g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했다.

주요 소비층은 남성이었다. 2016년 남성의 햄·소시지류 섭취량은 여성보다 36.5% 많았다. 특히 초중고생의 섭취량이 평균 섭취량보다 남성은 77%, 여성은 69%가 많아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햄·소시지류의 소매점 유통 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